

군선교연합회광주지회 해군3함대 방문 격려 3함대사령관 이성구 소장 “기도와 협력에 감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지회장 주문창 목사) 임원들이 지난 6월 12일(목) 오전 해군3함대 사령부(사령관 이구성 소장)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은 3함대를 방문, 국토방위에 헌신이 없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

고 500톤급 군함 내부를 둘러본 후 부대 내 교회에서 군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은 이어 제3함대 사령관 이구성 소장을 면담하고 군선교연합회에 대해 소개하고,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는 동안 기독교 신앙 활동을 통해 군 전력강화

에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소장도 “작은 믿음이지만 기도와 성경읽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군 선교사역으로 진중세례, 동절기 사랑의 온차 보내기,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이 해군3함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3함대사령관 이구성 소장, 네 번째가 군선교연합회 광주지회장 주문창 목사.

부활절·성탄절 등 절기 미디어 선교, 군중사역 협력 등 다양한 군 복음화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제3회 북구장애인 인권영화제 열린다

7월 1일(화) 오전 11시부터 북구청소년수련관서

제3회 북구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는 7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최하는 북구장애인 인권영화제는 미디어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의 시선과 입장이 반영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비롯해 차별받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인권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형성한다. 주최측은 본 영화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영작은 ‘사랑? 사랑, 사랑!’, ‘시설 밖, 나로 살기’, ‘우리는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입니다’, ‘털썩...털썩’이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에는 ‘털썩...털썩’의 조재형감독과 영화출연자들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있다.

공 연 명: 제3회 북구장애인 인권영화제
공 연 일 시: 2025년 7월 1일(화) 11시~16시 (총 1회)
공 연 장 소: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북구 대천로 86)
문의: 062-433-7782
주최: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이번 영화제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 이 작품들을 영화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기획했다.

주최측은 “배리어프리 작업을 통해 화면해설, 자막 등을 제공해,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여 영화 관람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마을장애인인권영화제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지나호에 이어서

바로 옆에는 같은 재단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늦게 간다는 자부심으로 00공고라 하지 않고 00인문고등학교라 명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순항하는 화급이었지만 간혹 도망을 가거나 비행기를 저지르는 학생도 있었다. 이 애들은 시내에서 빨간 프라이드만 보면 깜짝 놀라 출렁랑을 쳤다. 자기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었다. 프라이드를 몰고 학생들이 있을 만한 시내 곳곳의 오락실, 만화방, 당구장을 뒤지고 다녔다. 나에게서는 매일 밤낮이 따로 없었다. 낮에는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는 우리 반 교실을 들락거렸다. 밤에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애들 먹거리 챙기고, 종례를 했다. 그리고 빨간 프라이드와 함께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받거리를 누볐다.

8명씩 데리고 살면서 항상 부족한 것은 식량과 급식비 그리고 애들의 생활비였다. 생활비를 보태줄 여유 있는 부모가 드물었다. 우리는 사천 평의 농장에 닭, 오리, 토끼를 키웠다. 토끼는 번식력이

친구는 지금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장에서 달걀 장사를 하신 분들이 찾아왔다. 왜 노상에서 달걀을 팔고,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항의했었다.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달걀 판매를 계속했다. 이 골목, 저 가게로 쫓겨다니면서도 용전의 달걀을 팔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다. 학살공통체가 자연스럽게 생활공통체도 되면서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었다. 가족이 급격히 늘어나서 사료가 부족했다. 여름철에는 온통 풀밭이냐 그런대로 버텼으나 겨울이 문제였다. 생각해 낸 것이 학교급식이었다. 급식 후 남은 잔반을 프라이드에 실었다. 닭, 오리들이 너무나 잘 먹었다. 아이들은 가저온 음식을 맡은 가족들에게 먹이면서 엄청 좋아했다. 가족들의 자란 모습이 눈의 뿔 정도로 잘 컸다. 변호관도 쪼그라진 ‘광주 1도 6076’, 빨간 프라이드는 하루에도 몇 번을 번실했다. 등하교를 시키는 통학차가 되었다가, 화물차가 되어 가족 사료를 운반하고, 학생들을 찾아 떠도는 순찰차이기도 했다.

빨간 프라이드-2

강에서 처음 10마리로 시작했는데 얼마 후 200마리까지 늘더니 그 다음부터는 셀 수가 없었다. 토끼는 구멍마다 새끼를 낳아서 온 동네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학생들과 나를 보고는 마을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토끼뿐만 아니라 닭도 달걀을 아무 데나 날아버렸다. 풀속에 있는 달걀을 거두기 위해서 새소 대야를 들고 밤마다 풀밭이 불빛으로 달걀을 찾으러 다녔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지저분한 이불집이나 닭장을 깨끗이 닦아서 사내 말바우시장으로 팔려 다녔다. 처음에는 ‘달걀 사세요’란 말을 못했는데 애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청정 지역에서 난 달걀이요...”, 여러 명이 여기저기서 외치니 재래시장에 온 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다. 달걀 보다는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해 했다.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다. “선생님,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써 붙이게요”

‘청정 지역에서 풀어놓고 키운 닭’,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공해 노지 달걀’, ‘학생들이 직접 키운 영양 달걀’이라 쓴 종이를 몇 군데 붙였다. 달걀이 잘 팔리고, 돈 꽤 벌었다. 달걀을 가장 잘 판

1994년 3월에 인연을 맺어 약 9년간 이 빨간 프라이드를 보낼 때 우리는 모두 웃었다. 물론 학살공통체를 마무리하고 707명의 아이들이 헤어진 후에도 바로 정리하지 않았다. 장학사 시절에도 이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다. 50만 킬로미터. 그런 데도 잘 굴러다닌 빨간 프라이드는 강하고 아무진 차였다. 우리집에서 살았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빨간 프라이드가 지나가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본다고 한다. 빨간 프라이드에 대한 기대, 애환, 공포로 빨갛게 물든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한다. 프라이드를 보낸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뜨거운 교직 인생은 빨간 프라이드와 함께 했다고 생각된다. 아이들도 말한다.

‘빨간 프라이드는 박주정 선생님이고, 빨간 프라이드는 우리 707명의 추억이다.’

어느 날 어머니 한 분을 태웠는데 창문이 고장 났다. 가급 길거리에서 멈추곤 했다. 수명이 다했고, 다른 인연이 시작되었다. 폐차장 레커에 실려 갔다. 나는 빨간 프라이드와 이별할 때 눈뿔이 울었다. 돌아보며 또 울었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기독병원 ‘방문구강 건강관리 실무교육’ 성료

통합돌봄 연계 광주보건대 치위생학과 협력 현장 실행력 강화

광주광역시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6월 12일, 광주보건대학교 통합치위생실습실에서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구강 건강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건강돌봄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광주지역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등 약 20명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행을 위한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교육은 김경명 팀장(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이 ‘통합돌봄의 이해’, 허명옥 교수(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가 ‘방문대상자의 구강특성과 수행과정’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입체조 시연, 구강 내·외 미세기기 활용법, 방문 구강관리 용품 실습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1차 교육은 광주기독

병원, 광주광역시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광주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전문 실습실과 실습 기자재를 적극 활용한 점에서 통합돌봄 기반 실무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재가노인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지역 보건소 실무자들의 통합돌봄 역량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12일, 광주보건대학교 통합치위생실습실에서 지역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방문구강 건강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오는 6월 24일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를 주제로 한 2차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이다. 2차 교육은 통합돌봄에서의 방문간호의 실제 역할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노블요양병원

바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